

# '연공서열 중시' 국회, 이번엔 바뀌나?

## 민주 국회의장단 경선에 시선

의장, 6선 '터줏대감' 박병석 vs 5선 '경제통' 김진표  
민주, '헌정사 첫 여성 국회의부위원장 배출' 놓고 관심집중  
부의장, 4선 김상희 vs 5선 이상민·변재일 구도

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단 경선에서 '연공서열(年功序列) 중시'의 여의도 문화에 굳이 생김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당 몫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다. 후보 등록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원내교섭단체가 의장단을 구성하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에는 의장 자리 외에 부의장 1명이 할당됐다. 국회의장은 일찌감치 6선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과 5선 김진표(경기 수원부) 의원의 양자 대결로 굳혀졌다. 선수는 박 의원이 당내 최다선이나, 연배는 김 의원이 더 높다. 박 의원은 69세이고 김 의원은 74세다.

충남 대전 출신인 박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 내리 6선을 한 터줏대감으로 계파색이 없고 당내에서 큰 잡음이 없이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장점점으로 꼽힌다. 4선 시절인 19대 국회부터 초선 당선인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해 조언하는 손편지를 써왔다. 황해도 연백 출신으로 실형인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 '경제통'이다.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친노·친문 인사다. 18대 원내대표를 지내 야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당 일각에선 높은 선수(選數)에 힘입어 박 의원에 대한 추대론이 함께 제기됐지만 김 의원이 출마에 의욕을 보이면서 추대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더욱이 박 의원이 5선이던 20대 국회 전·후반기 경선에 모두 출마해 6선 정세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맞붙어 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높은 정책이해도를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조장적 협력을 이끌 적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이 각각 선수와 나이 면에서 당내 원로 격인 탓에 굳이 전반기 의장을 놓고 경선을 치러야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등 '명분'에서 약점이 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선 '여성 부의장' 이슈가 판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여성 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은 일찌감치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에 의견을 모았고, 여성 최다선인 4선 김상희(경기 부천시) 의원을 추대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상대로는 남성인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변재일(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유력하다. 제헌국회 이래 단 한번도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진출한 적이 없다는 명분이 당내 여론에서 힘을 받으며 김 의원이 초반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다만 연공 중시의 여의도 문화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선수가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더욱이 복수 후보가 나와 무기명 투표인 경선으로 가게될 경우 표심의 향배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부의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의원들은 여성 부의장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발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리키움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큰 정치, 마음에 새겨"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 당대표 취임 축하 전화에

열린민주당 초대 당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담 취임 축하 전화와 관련 "대통령의 큰 정치를 마음에 새긴다"는 소감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남겼다. 최 대표의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고 실천하시는 대통령의 큰 정치를 마음에 새긴다. 사람은 세상을 일구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긴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희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36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간 취임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권력 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뉴시스

## 미래통합-미래한국 "합당논의기구 구성기로... 조속한 합당 추진"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공동노력' 미래통합당이 14일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과 조속히 합당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 뒤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원유철 대표는 "주호영 권한대행과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하게 논의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또 "여야 합의 없이 4+1이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를 지난 총선에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靑 새 경호처장에 유연상 차장 승진 임명

### 주영훈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유연상(55) 경호차장을 승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유연상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대통령 경호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내부조직의 혁신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호제도 및 경호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신임 차장은 전북 고창 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경호처 공채 3기로 임용된 뒤 경호본부 경호부장, 경호처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처 차장을 거쳐 경호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뉴시스

## '안경환 아들 비방' 옛 한국당 의원들, 손해배상 책임 확정

안경환(72)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옛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가 광상도·김진태·여상규·이은재·주광덕 등 옛 한국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6월 아들 안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고등학교 교사의 발언을 인용했으며, 학교 측이 안 전 후보자에게 혜택을 베풀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으며, 광 의원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